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광주·전남지역 18곳 선거구의 후보 경선을 대부분 마무리 하는 등 4·15 총선 '호남 탈환'에 도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결집한 민생당도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민주당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전초전 성격이 강한 이번 총선에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에 신진 정치세력을 대거 포진시켜 '세대교체' 바람을 준비하고

있고, '인물론'을 내세운 민생당의 반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또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비례대표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앞다퉈 이 지역에 후보를 내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 선거구의 특징과 주요 현안, 선거 쟁점 등을 선거구별로 나눠 점검한다.

4·15 총선 누가 뛰나

신인 돌풍이나 3선 관록이나 청와대 출신·예산통 한판대결

광주 동남갑

윤영덕·장병완 양자구도 압축

윤 "민주세력 정권 재창출 기여"

장 "호남정치 품격 높여겠다"

사분오열 찢긴 조직 재결집 변수

산단 개발·백운광장 개선 이슈

윤영덕(50)



장병완(67)



학력	북경대 대학원졸업 국제정치학 전공 법학박사 (전)문재인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서울대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20대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전)기획예산처 장관
경력	-에너지 삼각벨트 구축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 유치 -송암산단, 문화콘텐츠·ICT 융복합 육성	-에너지밸리산단을 조기활성화 -백운광장 주변 활성화 교통난 해소 -진월C 조기개통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예비후보와 현역 국회의원인 장병완 예비후보 간 양자구도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동남갑에서는 빛그린 산단·송암산단 개발과 백운광장 일대 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정치 신인인 윤 예비후보가 3선의 현역 국회의원인 장 예비후보의 관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 포인트다.

윤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재선 구청장과 지역위원장을 지낸 최영호 예비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보폭을 넓히고 있고, 장 예비후보도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4선 도전에 나섰다.

남구 선거 판세의 핵심은 경선 과정에서 사분오열됐던 민주당의 조직력이 윤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을지와, 지난 12년 동안 쌓인 장 예비후보의 경험과 관록이 호남지역의 높은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설지 여부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 후보 간 고소·고발이 잦았고, 전통적인 동남갑 내 조직이 각 경선후보 진영에 흩어져 있어 자칫 본선에서는 '조직 없는 선거'로 전락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합당 후 총선을 앞둔 민생당의 조직 사정도 마찬가지다. 수년간 '호남 예산 지킴이'로 활약했던 장 예비후보의 관록이 강한 조직력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윤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에 첫 발을 내딛은 '정치 신인'이라는 점에서 신진함과 패기가 강점이다. 윤 예비후보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광주를 열원하는 지역민들께서 정치신인인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해 줬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 조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주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권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전남지역에서의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한다. 그 뿐 아니라 동남갑 지역에서 일으켜서 반드시 4월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동남갑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제된 동남갑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산·정책·사람·기업'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역으로 가져와서 새로운 남구를 열고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지역으로 내려와서 골목에 누비며 인사를 드렸던 마음으로 돌아가, 앞으로 남은 한달 동안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저의 정치 비전과 제가 가진 진정성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정치가 바뀌어야 비로소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대통령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경험을 검증받았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광주·전남 미래혁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산업 집중 육성 ▲에너지 삼각벨트 구축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 유치 ▲송암산단, 문화콘텐츠·ICT 융복합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의 5대 핵심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첨단 산업단지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이

뤄내겠다는 공약 이행 계획도 세웠다.

장병완 예비후보는 지난 3년의 총선에서 55.62~67.81%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저력이 있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만큼 지역 내 유일한 '예산통'으로 꼽히고, 오랜 의정 활동이 강점이다.

장 예비후보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그 첫걸음이 국회 운영에 대한 혁신이다"면서 "국회의원의 책임감과 품위를 유지하는 국회,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운영에서 벗어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국회, 개별 상임위에서 법안과 예결산안을 열심히 심사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개혁에 앞장 설 것이다"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도 편법적 국회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개혁 3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갈 예정이다"며 "먼저 국회의원의 품격을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특위 운영 실효성 확보 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구에는 국가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등 지역발전의 그랜드 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하다"면서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음. 경쟁 통한 호남 정치력 강화로 호남의 가치를 높이고 민주개혁세력 정권재창출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은 ▲차세대 전력에너지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유치 ▲문화콘텐츠·ICT, 융복합 문화산업단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백운광장 중심의 도심재생 ▲도시 캠퍼스를 통해 평생교육 육성 등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조직력 vs 현역 프리미엄 광주역 개발·각화시장 이전 공약

광주 북구갑

광주 가장 치열한 본선 예고

조오섭, 탄탄한 지지기반 강점

김경진, 민생당 입당 여부 변수

정의당 이승남 후보도 출사표

"광주정치의 미래 책임 지겠다"

조오섭(51)



이승남(50)



학력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	전남대 사범대학 국사교육과 4년 제적
경력	(전)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전)민주당 광주북구갑지역위원장 직무대행	(현)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장 (현)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
주요 공약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출석 벌칙조항 신설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확대 -질병관리본부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동일노동 동일임금급 제정 -위협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기초연금 월 50만원 인상 및 대상 확대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텃밭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꼽히는 곳이다.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조오섭 예비후보가 당내 조직을 규합해 본선을 준비중이고, 지역 내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무소속 김경진 국회의원이 재선에 나서면서 광주·전남 선거구 중 가장 치열한 본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다. 정의당도 이승남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구는 민주당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조 예비후보가 빠르게 지역 내 조직을 장악하면서 경선이 성사됐다. 또, 경선 상대였던 정준호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김 예비후보와의 '원팀'에 나서는 등 다른 선거구에 비해 경선 과정의 민주당 조직 이탈이 적은 지역구다.

현재 무소속인 김경진 예비후보의 민생당 입당 여부도 주요 변수 중 하나다. 낙후된 북구 지역 구도심과 공단, 광주역 인근 활성화 문제 등이 주요 총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복지비 지출이 다른 일선 구정에 비해 높아 복지 정책 대결도 예상된다.

조 예비후보는 재선 시의원을 지내 지역구 내 지지기반이 탄탄하다는 게 강점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근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실무도 쌓았다.

그는 "이번 총선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어받아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발전의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집권여당,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이란 미명하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 재결집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으로는 ▲북구 발전의 '뇌관' 광주역 행정문화경제복합 신도시 개발 ▲4차산업 교육 허브 도시 구축 ▲자연과학고 유후부지에 교육연구정보원 이전, 4차산업 진로지원센터 신설 ▲일신방직, 전남방직 이전부지 개발 및 도시재생 ▲동광주 IC페도부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말바우시장 현대화와 현안 과제 해결 ▲광주호 호수생태원 역사문화생태벨트 조성 ▲옛 광주교도소, 5·18 사적지 역사적 의미 복원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부지개발 ▲방공포대 이전 등이 있다.

김경진 예비후보는 민주평화당 탈당 이후 민생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다.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경무수석을 상대로 한 정문호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질타로 '국민 스타'로 등극했다. 그는 의정활동 뿐 아니라 그동안 지역구 관리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최근엔 매일 지역구를 돌며 청소 등을 통해 유권자를 만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특정당에 소속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실무도 쌓았다. 그는 "이번 총선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어받아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발전의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집권여당,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이란 미명하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 재결집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으로는 ▲인공지능 수도 '광주' 건설 ▲자차량,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 500여개 육성 ▲광주역 일대 개발·활성화 ▲무등산·광주호 일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일대 공공개발 ▲말바우시장 관광개발 및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이승남 예비후보는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의당을 광주시민의 소중한 정치적 대안으로 만들고자 한다. 민주당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바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광주 정치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력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공약은 ▲동일노동 동일임금급 제정 ▲위협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기초연금 월 50만원 인상 및 대상 확대 ▲2035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및 2050년 탄소 Zero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이 있다.

또 "지난 4년간 실패 없이 달려왔지만

더 큰 광주,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해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면서 "중단 없는 북구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초선 국회의원 김경진' 보다는 '재선 국회의원 김경진'이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